

향토사연구와 유교유적

— 연구 필요성과 과제 —

이 해 준*

-
- I. 머리말
 - II. 유교문화 자원의 재평가와 향토사 연구
 - III. 조사대상과 체계적 정리방향
 - IV. 유형별 조사의 예시—향토사연구 측면에서—
 - V. 유교문화의 교육·관광자원 활용문제
-

I. 머리말

본 발제에서 발표자가 다룰 기본적인 과제는 대개

- ①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과,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과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 ② 유교문화는 조선시대 도덕, 지성사, 문화창작 부면에서 고급, 종합적 문화브랜드였다는 점과 지역사 복원에 유교문화가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③ 본 발제의 핵심으로 유교문화 정리와 연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 ④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등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늘 날 일부 문화비평가들 중에는 유교문화를 부정적으로 매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적

* 공주대학교 사학과

지 않다²⁾.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 등등 극복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부정적 의식이 팽배하였던 탓이다. 그런데 유교문화의 원형이나 본질과는 다른 ① 19세기 이후 굴절되고 왜곡된 말기적 현상과, ② 그것들이 일제와 해방이후의 혼돈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증폭·변질된 모습, 나아가 ③ 현대사회의 우리 주변에서 보는 가문 이기주의나 파쟁의 모습을 일치시킨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은 만약 유교문화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사조로서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겠나 하는 점이다. 또 충절의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이 양반 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선비 정신은 결코 보수적·관념적이라고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개혁·혁신적이고 강경하여 보수진영의 강한 견제를 받았다는 점을 대개 간과한다. 만약 조선조의 충청도 선비정신에서 올바르게 본받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부족하고 퇴색된 이러한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을 우선적으로 되찾는 일일 것이다.

또한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의미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와 노력, 그리고 가치 부여가 아닌가 한다. 전통은 “필요로 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하여 보물처럼 재활용 된다”고 한다. 이 발표문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유교 및 유교문화를 연구, 정리, 개발, 활용함에 있어 고려되거나 짚어보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논의하는 빌미로 작성된 것이다. 이 작은 글이 그러한 과정에 조그마한 디딤돌이라도 되어 유교문화를 통한 충북 지역민의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가 높여지고, 나아가 충북 향토사연구의 수준, 업적이 한 단계 향상되는 데 일조가 된다면 더 없는 다행이겠다.

2)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자가 죽어야...’류이다. 이 같은 조선조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에는 물론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도 있으나, ① 식민사관, 실학, 민족주의사학의 냉혹한 비판과 ② 서구적 가치관(과학, 실증, 경제)에 의한 가치 폄하가 큰 몫을 한다. 그리하여 ③ 유교망국론 : 당쟁·예송, 관념·추상·비현실 ... 등등으로 이어지는 의식이 강하다.

II. 유교문화 자원의 재평가와 향토사 연구

1. 현대적 계승의 올바른 가치

유교문화는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되었다. 마치 비현실적, 비실용적, 그리고 전근대적인 모든 것의 원천인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특히나 당쟁과 유교망국론에 이르면 ‘분열, 배타, 혈연, 보수’ 등등의 퇴영적 모습들의 모든 원천이 마치 유교에 있는 것처럼 평가된다.³⁾ 본질에 대한, 그리고 제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굴절된 일시 현상의 확대 강조는 우리 문화의 폭과 깊이를 축소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오히려 그 보다 유교문화는 21세기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닌다. 사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폄하해서 그렇지 조선 시기는 누가 뭐래도 ‘도덕과 지성’이 존중된 사회였다. <양반 = 사족 = 선비>의 문화 수준은 적어도 현대 인문학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량, 관심의 폭(문학-정치-사상 종합지식)이 그렇고,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런가하면 그들은 王道, 道學, 聖賢 政治를 추구했던 도덕집단이었다. <君子와 小人>의 격을 가르치고, 批判과 公論(輿論)을 통한 민의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실천을 중시하였다. 과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어찌면 오늘의 지성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될 만하다. 그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사회문화적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 등 제 분야에서 현대인들이 귀감을 삼고 부러워해야 할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 조선시대의 유학자(양반, 선비)

- ① 고도의 학문적 質과 깊이, 범위 : 경쟁력. 문화주도층, 文史哲 종합지식
- ② 도덕 실천자, 경세가 : 王道 道學 君子 民本(牧民) = <知性>
- ③ 공론과 여론(비판)의 대변자 : 참여와 분권(자치, 자율)
- ④ 문화예술의 창조자 : 사회교육, 도서출판, 문학과 예술의 후원자, 주체

3) 물론 이러한 비판은 재평가 작업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일시적으로 굴절되고 왜곡된 모습과, 그것들이 일제와 해방이후의 혼돈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증폭·변질된 모습, 나아가 현대사회의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파쟁적 모습을 상기하면서 모든 것이 유교문화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이다.

- ⑤ ⇒ 학문, 도덕, 실천, 문화, 지도력, 현실감각(경쟁력)
 - ⇒ 선비(양반) 때문에 망했다? 없어서 망했다?
 - ⇒ “우리에게 남겨진 最小限, 혹은 산질과 고사위기의 한국적 價値”

조선시대는 우리와 가장 친근하여야 할 시대이며,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밀집되어 존재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그만큼 자료가 많고 다양하여 재움이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선비와 어른이 없는 시대, 정신보다는 물질, 도덕보다는 능력과 경제가 우선인 사회, 공동체와 공생보다는 경쟁과 이기심이 앞서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되짚고 되새길 가치가 조선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다.

2. 유교문화유산의 활용의 한계

그러면 이러한 지역 유교문화 유산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과 활용 정도는 과연 어떠할까? 사실 비평을 하여 본다면 대체로

- ① 각개 문화유적과 인물들을 여러 형태로 나열 지적하는 수준
- ② 권위적 건축물 중심의 복원과 정비 형태
- ③ 유교문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효율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의 미숙
- ④ 특히 그것들이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의 모습으로 진행됨

등이 지적된다. 향교에 가도 건축구조가 주로 설명되고, 서원에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로 부가되는 인물 설명은 특정 가문 선조의 영웅적 일화가 중심을 이루며, 그 유적의 유교적 가치나 문화의 올바른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크다.⁴⁾ 그래서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유교문화 유적에 무관심하게 되며, 현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재생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건축물 중심, 가문 중심의 유교문화 확산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

4) 문화유적 정비, 복원에서 가장 어렵고도 문제점이 많은 분야가 바로 ‘인물유적’ 분야라고들 말한다. 대개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만연된 이유는 ① 고증과 자료 정리의 과정 미흡, 생략 ② 후손과 연고자 중심의 권위 과시형(?) 사업 ③ 대규모, 성역화, 추모 중심 논리가 아직도 강함 ④ 조경, 건축 외형 중심의 유적 복원(H/W 중심) ⑤ 비석, 사당, 동상, 전시관, 관리사, 편익 시설 ⑥ 효율적 활용과 자원화의 아이디어 창출 노력부족 때문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로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서원이나 향교, 고택의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핵심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유교문화의 대상·범위·유형도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특히 유교문화 유적은 다른 유적들에 비하여 경쟁력도 강하지 못하다. 즉 흥미롭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유적도 아니다. 오히려 “정신과 학문, 내면적 문화를 가치로 하는 유교문화 유적”을 머리 아픈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불교문화제는 격리되어 있고, 스님들이 생활하면서 관리하고, 현재도 신도들의 문화 종교 공간으로 유용하지만, 유교문화제는 생활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문화 골동화되어 생활과 괴리되어 있다. 이 점은 앞으로 주민의 자긍심이나 생활 속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만 할 개연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유교문화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나 비중, 예산투자의 성향, 주민들의 기대나 의식기반 역시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듯하다. 대개는 유교문화의 정리가 특정 가문과 인물 선양의 차원으로 이해되는 데서 비롯된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3. 향토사와 유교문화의 연관성

- 향촌지배세력과 향토사 연구 : 현전하는 역사유적 중에서 조선시기 이전의 이들 지역 지배세력의 성격을 반영하는 자료는 대부분 사건에 관련된 것이거나 지리지 기록, 단편유적들이 전부이다. 선사-마한시대의 경우는 예컨대 토성, 고분, 유물산포지 같은 유적으로서 그 성격을 밝혀야 하고,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역시 역사적 사건, 반란세력에 대한 기록이 이를 점검하는 자료가 되고, 유적으로 성터, 사찰, 고분, 유물출토 등은 이들의 위상을 물증으로 전해준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보다 구체적인 지방 세력의 실체가 들어나는데, 토착세력의 본관 설정이나, 불교세력과의 연관, 『고려사지리지』에 보이는 土姓, 續姓, 來姓, 亡姓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인물자료가 『지리지』에 科擧, 名宦, 忠孝, 寓居地, 塚墓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고려시기 이전의 인물이 조선시기에 후손들에 의하여 추송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

자료는 유적이거나, 고문서, 혹은 世稿나 實記類로서 재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후대에 재정리된 경우는 사료 비판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이 개괄적이면서 영세했던 성씨와 인물자료는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매우 구체적이고, 자료도 풍부하다. 수많은 기록문서의 작성주체가 되는 이들은 시기별로 그 위상과 성향을 달리하면서 각종 지리지류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초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와 조선후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여지도서』, 그리고 조선말기의 여러 읍지들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자료들이다.

그런가 하면 향교에 소장된 儒生案이나 齋任案, 서원 儒生案, 그리고 특별히 鄉案이 보존된 경우라든가 司馬榜目이나 文科榜目を 통한 과거급제자의 파악도 이러한 지배세력의 성격변화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즉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역단위의 개괄적인 성씨세력의 변동 내용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과거 및 인물조 기록 수의 비교, 성씨별 배출인물의 추이를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들이 남긴 文集과 기타 저술자료, 古文書와 金石文 자료 등등 조선시기 인물·성씨 연구에서 필수적인 자료들과 함께 지역사 자료로서 현지에서 추가할 수 있는 보다 생생한 자료들이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적의 경우도 기왕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 중심의 파악보다는, 그들이 사회세력으로서 기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추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 유교유적과 지역사의 복원 : 유교문화자원이 지역사, 향토사의 복원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인물, 성씨, 그리고 서원을 예로 설명하여 본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인물과 성씨연구가 예컨대 의병활동 인물같은 경우 특정성씨와 지역의 임기응변적인 필요와 조건에 의하여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전후좌우로 연계되는 의병사의 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우선순위나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개 인물이 연구된다면 개인의 공적 중심연구로 그치지 않고 지역정신사의 복원에 기여할 인물사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개 각 성씨(인물)의 성장과정은 소학의 보급이나 향약활동, 서재를 통한 후학 양성같은 사림활동이나, 국난기에 의병참여 등으로 묘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거의가 인물의 관력과 연계되면서 조선건국에 반대한 두문동 계열이나 세조찬탈, 기묘사화 등으로 불우한 처지에서 은거한 절의계 인맥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인물들의 행적과 역사성 문제이다. 대개 구전이거나 유서로서 알려지는 이들 사적이 정

확히 복원되지 못하면 지역사와는 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행적과 활동이 이루어졌던 사회적 배경과 함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해당 시기의 해당 지역의 비슷한 인맥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 과거급제자의 파약, 유향소를 비롯한 사람들의 활동양상들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검색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역적 분위기나 상호 비교자료의 검색과 동시에 각 성씨세력간의 연대 모습도 사람활동의 사회적 기반으로 주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서원·사우를 예로 살펴보자. 서원과 사우는 조선후기 향촌사회 질서변화에서 사족들이 종래 누려왔던 향촌지배권에 대한 광범한 도전을 수용하고 대응한 양상을 구명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자료보다 비중 있는 연구대상이다. 書院과 祠宇 건립의 목적과 건립주체의 성격, 건립과 사액의 과정은 향촌사회에서 각 성씨집단이 어떤 사회적 기반을 지니면서 기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하면 서원·사우는 결국 조선후기의 각 지역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해당지역의 향촌사회의 지배질서 재편과 鄉權문제를 집약적이고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서원 사우의 건립주체세력도 대부분 鄉内の 유림 혹은 道儒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鄉中公論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동세력이 학통, 성씨, 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사우의 건립주체세력을 분석하면 왜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서원·사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의 이유와,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대개는 서원의 성격을 단순히 건립단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서원의 건립이후 변화과정은 이러한 주체세력의 변화,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직접 관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최초 건립시기보다도 주목될 부분이다. 특히 적당하게 처리되는 추배제향과 추배시기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각 서원과 사우의 제향인물을 主壁과 配享, 連壁 혹은 并享의 형태로 구분하여 그 位次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 配享이나 竝享 인물들은 主壁으로 정해진 인물과 學緣·地緣·血緣·黨色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또 이 같은 과정은 대부분 연대하는 세력(향촌사회 내부, 혹은 중앙정치세력)을 가지면서 진행된다.

• 복원해야 할 종합문화 모습 : 그 뿐이 아니다. 향교나 서원은 혹평하여 지역의 당파 소굴, 경제적 특권과 민중수탈, 문중경쟁의 도구 등등으로 지목 된다⁵⁾. 그러나 이들도 문화사적

5) 이러한 유교유적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그 의미는 고건축 분야의 의미와 가치

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본다면 매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이 지녔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그런데 이들에 관련된 자료는 건물배치나 건물의 성격만으로 설명되어서는 곤란하고 각기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모습들이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당시의 학적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구조, 교육과정, 도서 등 고문서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아울러 이밖에도 서원은 각 지역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여러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⁶⁾

① 지성들의 집회소 :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상징적인 기구였다. 따라서 향교와 서원은 당 시기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이었다.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일방적 지식의 전수 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지성들의 집회소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사마재나 양사재, 그리고 수많은 명칭을 가진 각종 조직들은 이들 지성들의 선후배 간의 유대와 결속력을 보여주며, 이 토대 위에서 지연·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② 사회교육의 장소 :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확산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향교와 서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사림파들이 주력했던 소학의 보급과 향사례·향음주례, 향약의 실시와 사창 등등의 일련의 노력들도 대부분이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어 갔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조선 중·후기 사족활동의 거점은 서원이었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현들에 대한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었다.

③ 도서관 기능 : 향교는 국가의 교육 이념과 정책을 보급하는 창구이었고,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본산이었다. 따라서 향교에는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의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게 마련이었고, 때로는 국가의 주요 정책관련 공문서들도 향교에 소장된다. 그런가하면 서원은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되게 마련이고, 서원의 운영과 관련

에 한정되어 있고, 본연의 교육, 정신, 학술사적 의미와 기능이 철저하게 인지되지 않은 채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보수적 의미와 가치만으로 전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6) 바로 그러한 제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현재의 향교·서원의 골동화는 바로 이러한 의식과 이해가 부족한데서 야기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된 실제적인 고문서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것도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제향인물의 문집이나 실기의 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적 명망과 결속의 정도에 따라서는 향약이나 시회 등 각종 계회 자료들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④ 종합문화로서의 기능 : 유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이나 향교는 고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핵심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향교 서원 문화의 대상·범위·유형도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Ⅲ. 조사대상과 체계적 정리방향

1. 조사대상과 범위

- **문화유적별**

鄉校

書院·祠宇

不祧廟·祠堂·影堂

旌閭

樓亭

宗家·齋室

墓所·墓碑·神道碑

事蹟·功績·記績碑

書堂·精舍·書社

生家·遺墟址

記念物

磨崖刻書

其他

- **자료형태별**

遺蹟

思想, 行績, 著述

古文書

典籍(文集)

金石記文

民俗(儀禮)

衣食住

人物

마을(同族村落)

● **주요테마별**

人物 : (학행, 경세, 사상, 충절, 저술, 인맥, 학맥)

教育 : (향교 서원 서당)

組織 : (향약 동약 동계 족계)

儀禮 : (향교, 사우, 종가, 재실)

著名姓氏 : (종가, 마을)

追崇活動 : (신원, 명정, 증직, 시호, 추증)

2. 지역 유교문화의 체계적 정리 방향

이상에서 간략하지만, 유교문화 유산의 정리와 관련하여 발제자가 느껴왔던 점들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향토사연구의 차원에서 유교문화 유산은 무궁무진한 '자료 창고'라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은 자료원'이 그만큼 많고, 또 「저인망」式 자료수집도 유효한 분야가 바로 유교문화 분야이다.

이제 본 절에서는 이 같은 유교문화유산의 향후 어떤 체계와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유교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

- ① 유교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 ② 유교문화의 올바른 가치 재발견 노력, 교육
- ③ 유교문화와 향토사, 지역사복원의 밀접한 관련성 이해
- ④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큼을 이해 - 활용 가능성까지

둘째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구조화하여 효율성 증대

- ① 기 조사 자료의 목록화 작업 : 계열(유형별)화, 년표화
- ② 지역년표(편년) + 유형별(점검) + 오인, 부정확, 탈루 보완
- ③ 가문, 성씨별 자료 정리를 독립 유인 : 범위확대, 자료 축적(단 의식은 점검)
- ④ 우선 순위(공백, 특성화)에 입각한 지자체, 연구단체의 기획조사 분담수행
 - 미진(공백) 분야, 지역 유교특성을 대표하는 대상, 계열별 정리와 자료수집

셋째 지역별 유교문화 기초자원(유교문화 콘텐츠)의 일제 조사

- ① 유교문화 관련 유·무형의 자원 총괄 조사 : 범위와 대상 확대
 - 인물,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
 - 의례자료, 문중 및 종가 음식, 규범, 동족촌락 공동체 문화 등
- ② 다양한 연구 분야 동원 : 문학, 철학, 역사, 서지, 민속, 구전, 교육
- ③ 지역 유교문화 특화자원 발굴 - 활용
- ④ 특성 추출, 분야별 세미나, 연구, 자료집 간행

넷째 연구 수준과 깊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음 3절 예시를 참조)

- ① 지역 유교문화 특성의 규명 : 연구측면 (당과 학연 사상특성)
- ② 사회사적인 연구의 심화 : 시대별 유교문화의 구조화
- ③ 변천사에 대한 철저한 인식 : 향약, 서원, 문중, 촌락사, 인물
- ④ 유교문화의 종합문화사적 의미 점검 : 활용 관련, 인접 여러 분야 협력
- ⑤ 지역 문화자원으로의 적극 활용(교육, 체험, 문화관광)

IV. 유형별 조사의 예시 - 향토사연구 측면에서 -

1. 문화유적별 : 서원·사우조사의 경우

서원·사우는 조선후기 향촌사회 질서변화에서 사족들이 종래 누려왔던 향촌지배권에 대한 광범한 도전을 수용하고 대응한 양상을 구명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자료보다 비중 있는 연구 대상이다. 書院과 祠宇 건립의 목적과 건립주체의 성격, 건립과 사액의 과정은 향촌사회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지니면서 기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서원·사우는 결국 조선후기의 각 지방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해당지역의 향촌사회의 지배질서 재편과 鄉權문제를 집약적이고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여주기 마련이다.

① 건립시기와 제향인 : 書院.祠宇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書院조직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물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제향 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한 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추앙)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書院.祠宇는 건립된다. 다시 말하면 제향인물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향 하는 書院이 왜, 그 시기에, 어떤 세력에 의하여 건립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해당세력의 제향인물 선양(재조명, 포장 등)의 준비과정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해당세력의 실체와 변모(다음의 (2)건립주체세력을 참조)를 추적하여야 한다.

한편 건립의 시기가 주목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조선후기라 하더라도 書院.祠宇가 제 기능을 하던 시기와 남설현상으로 인해 그 기능과 성격이 변질되던 시기의 書院.祠宇는 구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에서의 여러 書院.祠宇는 사족들의 결집 매체로서도 기능하지만, 그밖에 사족간(씨족간)의 경쟁이나, 수령에 의한 견제. 이간으로 자체결속력을 잃을 가능성도 많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현상은 많이 보인다. 더욱이 17세기 중엽이후 문중적인 기반이 점차 강해지면서 18세기 후반-말기 경에 이르면 각 지방에서는 書院.祠宇가 남설되기 시작하여 본래의 書院이 지녔던 고유한 권위와 의미. 기능이 크게 변질되고, 이때부터 門中中心의 경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보는 書院.祠宇의 권위(지위)경쟁은 이같은 변질기의 모습이 재현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아닐 것이다.

② 건립의 주체세력 : 院祠의 건립주체세력은 대부분 鄉内の 유림 혹은 道儒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鄉中公論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동세력이 학통, 성씨, 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書院.祠宇의 건립주체세력을 분석하면 왜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지역에 書院.祠宇를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는지의 이유와, 건립될 수 있었던 배경도 설명이 가능하다.

③ 건립이후 변화상 : 대개 書院.祠宇의 조사나 일부 연구에서는 그 서원의 성격을 단순히 건립단계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서원의 건립이후 변화과정은 이러한 주체세력의 변화,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직접 관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에서 최초 건립시기보다도 주목될 부분이다. 특히 적당하게 처리되는 추배제향과 추배시기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각 院祠는 제향인물을 主壁과 配享, 連壁 혹은 并享의 형태로 구분하여 그 位次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이들 배향이나 병향인물들은 主壁으로 정해진 인물과 學緣.地緣.血緣.黨色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사실 書院.祠宇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는 이 제향인물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추배와 위차교정이 진행되게 마련이고, 바로 이 점은 書院.祠宇의 성격변화나 변천사를 이해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시 할 대상이다.

그리고 창건의 과정상 官과의 연대가 필요한데 이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중요하다. 모든 書院.祠宇는 官의 허가에 의해 건립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있게 된다. 賜額이라든가 未賜額의 경우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있었으며, 이는 후일 훼손령단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폐단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 절차를 무시한 書院.祠宇는 수시로 훼손되기도 하며 (영조대, 순조대) 아예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기에 한 군현에 30-40개소의 院祠가 난립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院祠의 성격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④ 서원관련 자료 : 이 같은 서원의 조직과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남아 있다. 16세기 書院성립기의 자료들이 대부분 문집이나 현판 등의 단편자료로서 확인되는데 반해서 대부분의 관변자료들은 疊設, 良役侵奪, 貢稅 逋脫 등으로 역기능이 심화되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등록, 사적류로 출현한 것들이다. 결국 이 같은 관변자료의 편향적인 시각과 한계들은 書院의 성격을 갈등관계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 지게 만든다.

서원자료로서 書院誌나 祭享人物 文集(附錄篇)은 기초적인 정리로써 해당서원의 건립과정이나 변천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전해 준다. 그리고 이중에는 비록 고문서의 형태는 아니지만 고문서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고문서자료를 추적하거나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서원에 소장된 고문서류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대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1-1 儒案 院生案 靑衿案 1-2 院長先生案, 齋任案(有司案), 執事案, 執綱案, 院直案
- 2-1 書院笏記 2-2 記文, 祭文, 祝文 2-3 書院規約 2-4 書院節目 立議 完文
- 2-5 講案(講規) 2-6 契案(學規, 節目)
- 3-1 願納案 3-2 額外院生案 3-3 院村(契防)除役文書 : 通文 上書 稟目 所志類
- 3-4 書院田畝案 3-5 奴婢案 3-6 院保案, 院直案 3-7 秋收記(打作記) 捧賭記
- 3-8 身貢案 3-9 守護軍案 3-10 傳與傳掌冊 錢穀什物錄

3-11 日記(營建, 重修都錄, 會計錄) 3-12 用下記

4-1 顧往錄 尋院錄 時到記 4-2 遊院錄 4-3 義捐錄 扶助記 例扶記 別扶記

4-4 建立疏, 請額疏 4-5 薦狀 通文 稟目 上書 所志類

2. 자료형태별 : 문집조사의 경우

과거 우리의 선인들은 현대인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과거의 인물들은 전인적인 능력을 교육받고 수련하여 학자는 곧 정치가요, 저술가이면서 문필가였고 사상가였다. 그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자신의 저술집인 <文集>을 준비하였고, 그 文集 속에 종합적인 그의 생각과 주장들을 온축시켰다. 文集에는 대개 ① 詩.賦와 같은 문학작품, ② 書(편지글), ③ 疏.劄.啓와 같은 경세론과 정책건의, ④ 序.記.跋.文類, ⑤ 雜著라 하여 특별한 분야나 사실, 사항에 대한 저술, ⑥ 附錄 문집의 필자에 관련된 사적 등으로 나누어 편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附錄」편에 수록된 저자에 대한 후인들의 평이나 관련 사실, 년보, 행장 등이 향토사 자료로 활용가치가 매우 큰 자료이다.

이러한 문집들은 대개 刊印되었지만 아직도 未刊된 문집의 筆草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문집류 중 향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값지게 생각하고 우선하여 수집, 정리하여야 할 대상은 후자, 즉 未刊文集이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간행된 경우도 물론 내용분석을 통한 사료로의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긴 하나 그래도 간행본들은 이미 많은 수가 배포된 상태이고, 死藏의 염려가 일단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未刊의 문집류는 오직 하나 뿐인 자료이므로(유일성) 산실, 사장될 위험성이 크며, 일단 무지한 상태에서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볼 수 없다. 이렇게 不知不識間에 우리들에 의하여 계속 자료들이 인멸되어 간다면, 앞에 제시했던 바와 같은 '향토사자료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문집을 향토사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관련 자료를 다룰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의 문집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대상하는 시대에 그 지역에서 생존했던 인물이나, 지방 관리, 혹은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인물의 문집이 1차적인 주목대상임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청주지역이라면 청주출신 인물은 물론 청주출신 인물 및 청주에 임명되어 왔던 地方官들, 혹은 청주와 연결이 깊은 인물(처가, 외가, 서원·사우 제향인, 유배자 등), 청주관련 의 사건에 연계된 인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들의 문집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 문집의 쏠 내용을 살살이 뒤져볼 필요가 있다. 그가 읊은 詩·賦 등에서 각 지역의 절경이나 유적·인물·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것

은 곧 유적과 함께 귀중한 연구 자료로 발췌되어 마땅하다. 또 記文類에서 어떤 書院의 重修記나 上梁文題名記가 있다면 그것도 마땅히 챙겨두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편지글에서, 혹은 일기나 年譜에서 우리는 當時代의 지방사정이나 분위기, 중요사실의 전개 양상 등도 검출해낼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인물과 성씨의 盛衰, 流動도 단순한 口傳이나 傳說의 수준에 더하여 記錄物로서 보다 명확한 보완이 가능하다.⁷⁾

3. 자료형태별 : 고문서 조사(자료의 해제방식)의 경우

실제 우리가 역사연구에 흔히 이용하는 官撰의 년대기나 法典, 총집류들의 대부분은 지배층 혹은 중앙중심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기가 일쑤이며, 이에 따라 지방사와 연관된 자료 혹은 일반 민중들의 생활상은 거의 노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향토사연구의 주된 분야가 이러한 문헌자료가 검출되지 않아도 가능한 민속이나 구전·민담, 그리고 고고·미술사 관련 유적·유물의 확인 등에 집중되어 왔고, 문헌자료라 하여도 邑誌類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기록에만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관련시켰을 때 고문서자료의 조사와 정리는 아주 많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소장처별 조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대별 조사나 분야(주제)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재확인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만약 기존의 광역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같은 계획의 수립은 무모하다고 보여 진다. 대개의 지역에서는 鄉校·書院·祠宇, 樓亭(洞閣)·旌閭, 宗家와 齋室, 寺刹, 개인소장처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적하게 된다.

문제는 조사, 수집된 자료의 체계·효율적 정리와 해제의 방법이다. 자료를 해제하는 기본 목적은 이들 자료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지니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원형과 기재된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에 제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각 자료들의 해제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① 자료의 명칭 : 자료의 명칭은 내용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자료로 활용하기에 효

7) 그러나 이처럼 문집의 소재와 관련인물이 조사되었다고 하여 文集이 향토사연구에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각 文集의 內容 索引을 만드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바로 이 「내용색인」이 향토문화연구에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의 색인은 가능한한 目錄(目次)전체로 상세하게 만드는 것이 유익하며 가능하다면 정리하려고 하는 그 지방과 관련되는 사항에 註記를 하여 두는 것이 다음의 분류작업을 위해 바람직하다.

율적일 것인 바, 대부분의 자료들이 해당지역과 자료내용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예컨대 표제명이 ‘修行案’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 이것이 어느 지역의 무슨 조직의 수행안인지 알 수가 없고 내용도 꼭 그 표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료의 해제에서는 자료의 명칭을 정할 때 지역과 조직(기구.주체)의 명칭을 확인하여 ()안에 부기하여 “(淸州 北一面約) 修行案”으로 표기하여 주고, 만약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OO OO 面約) 修行案”으로라도 표기하여 후일의 보완과 분류를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료의 표제명과 내제명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表題名(面約修行案)과 內題名(面約座目)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소장자(처) : 대개 자료의 소장처와 소장자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주로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지방단위의 자료들은 소장처와 소장자에 따라 자료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의 항목 중에서 비중 있게 처리될 부분이다. 소장자(처)는 개인, 문중(서원, 서재, 종가, 학당 등)의 경우와 도서관의 경우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인데 개인과 문중의 경우는 지역과 소장자(처, 기구)명을 자세히 기록하고, 도서관 경우는 도서번호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목록명칭이 “표제명”과 다를 경우는 ()속에 해당 도서목록명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예, 주성강당 도서 241-12 執綱案)

③ 작성 년대 : 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주목될 것이 자료의 작성 년대이다. 그런데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1회적이고 유일한 년대의 자료도 있지만, 그와는 달리 자료의 작성 년대가 대상하는 시기, 작성(간행)시기, 필사, 중간시기 등으로 다시 구별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자료가 16세기중엽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나 그 유서만이 있을 뿐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고 임란이후 1601년에 중수한 서문만이 필사로 남겨져 오던 것을 이와 직결되는 관련 자료와 함께 종합하여 1789년에 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지금까지의 자료정리과정에서는 최초 창설 년대나 자료가 실제로 작성된 년대만을 논의한 실정이어서 자료해석상 제한이 많았다. 따라서 자료의 계기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의 작성 년대도 ㉠ 대상 시기(예; 16세기 중엽 - 1850년) ㉡ 작성 년대(예; 1789년) ㉢ 간행(중간)년대(예; 1850년 간행)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④ 작성자(기관, 조직) : 자료의 작성주체는 자료가 지닌 성격과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로서 다른 어느 사항보다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작성주체는 대표자적인 개인과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는 대상 시기와 대상하는 범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작성주체는 먼저 개인과 기구(조직, 기관)을 구분하여 “長興郡(군수 柳厚烈)”나 “寶城 忠

烈書院(원장 崔英敦, 金保惠, 李湜廷 등) 등으로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주체(개인)가 있으면 이를 ()속에 명시하도록 하고, 명목상(혹은 실질적)으로 관련된 개인과 자료의 연혁.변화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 舊序(1745년 李俊稷) ㉡ 重修序(1789년 金仁洪, 朴順鼎) ㉢ 跋文(1853년 朴夏京) ㉣ 追記(1886년 鄭鎭明) 등으로 序文 및 刊記·跋文의 년대와 撰者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대상지역(범위) : 자료의 대상 지역과 범위는 자료가 지닌 상대적인 위상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사회구조의 전체 틀을 구조화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징과 대상범위가 갖는 성격을 규명하는 전제로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명도 “충주목 ○○면(현, 충주시 ○○동 일대)”로 자료에 기재된 원래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을 병기하고, 자료의 범위가 지역 외에 특정범주를 갖는다면 “나주오씨 충절공파 문중” “장암정 동계원”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⑥ 서지사항 : 자료의 서지사항은 기존의 고문서, 전적의 설명방식을 이용하되 ㉠ 필사본, 간행본을 밝히고 ㉡ 규격(가로×세로 cm) ㉢ 몇권 몇책, 1책 몇면, 帖(몇절), 두루말이, 낱장 등 ㉣ 압인종류(관인, 목인, 수결 기타)를 가능한 한 분류하여 기재하면 좋을 것이다.

⑦ 자료의 내용과 성격해설 : 자료의 해제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자료이용자에게 각개 자료가 지닌 성격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수준으로 서술하되 기본적으로 자료위상, 형성배경과 동기(과정), 내용체제, 성격과 특징(가치와 의미), 관련되는 주변자료, 연구활용 분야와 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중요성을 지니거나 학술용어로 정리가 안된 원자료의 특수 용어는 ‘ ’표로 묶어 표시하여 본격적인 연구를 유도하거나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해제자의 주관적인 이론보다는 자료의 특징과 실체를 소개, 제시하는 수준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⑧ 기타 첨기할 사항 : 이상의 여러 항목 외에 각 자료가 지닌 특기할 사항이나 직접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 수록된 자료집(문집, 영인본, 연구지 등)을 제시하면 관련연구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주요테마별 : 인물 추송유적과 유물의 사례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대상이 바로 저명인물이다. 학자, 정치가, 충절인 등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관련된 유적과 자료들이 많고, 이것이 향토사 연구의 주요대상이 된다⁸⁾. 인물연구는 ① 현대적 의미와 계승 ② 평가와 재조명 ③ 지역문화사의 정리라는 세 과제의

해답을 동시에 얻으려는 노력이어야 하며, 개별인물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물간 상대 비교와 평가, 그리고 지역적 특성의 추출 등 보다 본격적인 연구진전이 있어야 한다.

유교문화 유적 중 인물유적의 경우 기왕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 중심의 파악 보다는, 그들이 사회세력으로서 기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추적하므로써 당대의 의미와 시대배경을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아가 인물의 당대모습도 중요하지만 후대에 어떻게 계승 이해, 평가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크다. 예컨대 亭子, 齋室·書舍·精舍, 學堂·書堂, 祠堂, 影堂, 旌閭, 宗家, 書院, 祠宇, 不祧廟, 神道碑가 건립되었다면, 그 주동 후견 인물은 누구인가? 그것이 가능했던 사회경제배경은 어떤 것인가? 왜 그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또 그 성격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등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인물추승, 창건시기에 국한된 논의는 아주 기초적이고, 오히려 그 이후 이어지는 중수, 보수, 이권에 대하여도 시기와 배경, 후원세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⁹⁾

대개 조선시기의 지방사회에서 주도적이었던 성씨와 인물들은

- ① 14-15세기 : 功臣-鄉吏-士大夫, 土姓
- ② 15-16세기 : 勳舊-士林, 土姓土族과 移居士族
- ③ 16-17세기 : 世族(土姓)-土族,
- ④ 17-18세기 : 黨派-學脈
- ⑤ 18-19세기 : 新鄉-舊鄉, 門中化, 儒生義兵

등으로 시기별 경향성을 보이면서 계열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업적과 유적, 자료들도 그에 상응하게 마련이어서 인물의 연구와 자료정리에서 이러한 계열과 경향성 파악은 아주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할 것이다.¹⁰⁾

예컨대 위의 각 시기별로 지역인물이 있다면 ①시기에는 신흥성리학 수용의 모습이 저술이나 학맥, 일화로 남아 있을 것이고, ②시기에는 주자가례나 소학, 향약이나 사창, 유향소관련

8)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인물연구는 왕왕 조상 자랑이거나, 위촉 연구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매도되기 일쑤이다. 이런 평가는 조선시기의 인물연구가 후손중심의 尊慕型으로 단편적이고, 선조 추앙의 偏向的 형태에 머물기 때문에 나타난 지적이다. 그러나 향토사연구의 이방에서 이러한 정리, 연구가 기초가 되어 지역문화사가 보완된다는 점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 자료의 재해석이나 검증작업의 철저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이해준, 驪興閔氏 三世七孝의 歷史的 背景과 傳統, 한국동양철학회 발표(2006. 8.11)

10) 이해준, 1993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저)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 서숙이나 정사에서 강의 사례, 사회관련 유서, 새로운 성씨(사족가문)의 이거 등도 이 시기에 많다. ③④시기에는 의병활동이나 서원, 당쟁, 학맥 등등에 관련된 유적과 자료가 많고, 저술도 활발하며 서서히 문중활동의 성향도 보이기 시작한다. ⑤시기가 되면 사족의 향촌지배력이 위기를 맞아 흔들리는 모습, 아니면 봉건모순과 연계된 부정적 모습도 보이고, 실학적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나 서구열강에 저항하는 보수적 유생의 자취가 많다.

한편 인물 및 성씨 관련자료는 대부분 선조 추승활동 및 동족활동과 연계되어 있게 마련이다. 즉 서원제향이나 추배, 증직, 시호, 문집간행, 족보간행, 문중조직(화수계, 족계, 문중계, 사초계), 재실(제각)과 선형 마련 등등이 그러한 예들로 현조의 행적이나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승, 선양활동은 대개

- ① 행적 재평가(추승·정려·신원·추증)
- ② 유적 현창(묘소, 신도비, 행장, 영당, 사당, 재실)
- ③ 향촌사회 및 국가인정(서원, 사우건립)
- ④ 문중권위의 홍보(파보·족보·문집 간행)

등등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다.¹¹⁾ 이들 다양한 추승활동들은 전제한 것처럼 시기와 과정, 주도층의 활동범위나 지위, 지원세력, 사회경제적 기반 등등이 함께 밝혀져야 향토사 연구로서의 의미와 활용도 가능해 진다.

V. 유교문화의 교육·관광자원 활용문제¹²⁾

1. 현황과 한계

인물유적, 유교문화는 다른 유적에 비하여 “靜的, 교육적”이라는 강박관념이 강하다. 그런 까닭으로 인물유적은 지루함, 그리고 재 방문율이 가장 적은 문화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요와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복원과 정비,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누가 찾아올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고 느끼게 할 것인가? 다시 찾고 계승할 주체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교문화가 후대로 올바르게 계

11) 이해준, 199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제2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해준, 2003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48호 한국역사연구회
12) 이해준, 2001 「논산 유교 및 예학문화권 개발방향과 전망」, 『향토연구』25집, 충남향토연구회
임선빈, 2002 『충청남도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승되려면 유적복원 보다 몇 배나 정성과 노력과 철학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복원은 돈으로 가능하지만, 이 계획과 의지는 머리로 가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 - 활용자(수요자) - 설계자”의 역할이 서로 상생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대체로 연구자의 생각과, 이를 실행하는 행정, 교육, 안내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른 경우도 많고, 또 아무리 좋은 연구라도 수요자나 활용의 방법에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교육가, 자원 활용전문가가 항상 함께 모여 연계하고,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 ① 충실한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연구)
- ②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활용)
- ③ 새로운 마인드의 유적 정비 복원(정비)

가 짝을 이루는 모습이어야 한다.

2. 개발의 방향

개발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지역별 유교문화자원 기초 조사·정리이다. 범위도 기존의 유형문화재(건축물) 중심에서 유교문화 관련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문화유산별로는 인물,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일화, 전설, 문중조직, 종가문화, 음식, 의례, 촌락공동체문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투자된 문화재의 복원과 정비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이제는 체험과 유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소프트)을 확대하여야 한다. 대체로 유교문화 자원들은 “靜的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함이 느껴져서 재 방문율이 적음”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 개념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실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면 그 같은 평가는 쉽게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향교·서원·서재·서당에서의 교육과정도 사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제례와 의례도 정치·사회활동의 측면에서 제례만이 아닌 생활의례로서 향약·향음주례·향회 등등의 자료를 찾아 재생하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고택도 단순한 주거 건축물로 그치지 않고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중부의 삶이나 가정교육, 가훈, 종가문서와 유물, 음식 등등의 유산을 통한 생생한 생활사로 설명될 수 있어야 폭넓은 관광객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도 높은 벼슬이나 행적도 좋

지만, 사상·저술·전설·일화, 특히 해당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들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상범위를 유교문화와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원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사회의 대표 문화로 유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객관성과 효율성, 실제성이 있어서였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재현하여 현대에 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앞에선 여러 문화상들이 각 유적에서 유서에 맞게, 실제 해당지역의 전승된 자료를 토대로 재현되고 이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유교문화가 경쟁력과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제까지 일반화되었던 유교문화의 대상범위가 서원 향교에서 서당·정사·정자·서재로 확대될 것이고, 건축물 이외의 고문서나 전적, 금석문, 지명, 전설 일화까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제례와 혼례에 한정된 의례들도 향약례나 향음주례, 동계 동약 의례, 향회, 문중회 등으로 넓혀질 것이며, 종가의 음식이나 종부의 삶, 동족촌락의 공동체 문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문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를 들어 환경(풍수·전통촌락), 관광숙박시설(전통가옥), 음식(반가 음식) 등등 그에 걸 맞는 연계개발을 하여 현대에 맞는 유교문화가 재생·활용된다면 한국의 유교문화는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으로 발돋움이 가능할 것이다.¹³⁾

3. 교육, 체험 프로그램(예시)

- 교육, 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 전통의례 관련 : 서원제향 등 유교의례 이벤트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 제례로 화석화시키지 말고, 전통과 현대의 만남 모색 : 유림과의 대화, 의미 해설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향시, 급제유가행차
 - 전통제향의례 : 석전제 서원제향의례
 - 사족행사의례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건축문화재 등 유적 답사와 탐방
 - 기능과 문화 성격별 유교문화재 및 유물의 재인식

13) 유승무, 「유교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유교문화 체험의 대중화방안」,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유교현대화 연찬 6, 2003 pp.56~57참조

- 문화재도 건물 이외에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향교·서원 이외에 연결되는 관련 유적도 병행, 연계
 -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사우, 정려, 인물유적,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 포함
- 운영의 실제 모습 : 관련자료(고문서) 동원
 - :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출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등을 포함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소장 자료 전시 및 학습장화.
-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 서원제향 인물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 관련유적의 복원·정비(생가, 유허지, 활동유적 등)
 -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 전시 - 정신, 저술, 생애, 일화, 전설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생애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전시
 - 인물사상의 교육장
 - 지역 배출인물 선정 학술세미나 년 1회 이상 정례화
- 전통교육 및 강학 체험 이벤트
 - 강학·교육관련 : 서원에서의 교육 및 학문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특화함.
 - : 교육과정과 교과서 : 운영의 실제 ; 재정 인적구조,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동·서재의 기숙과 생활 : 고강(시험) 기숙, 등등 교육생활사 체험
 - 유림과의 토론(대화) : 서원 향교
 - 기타 향교·서원 생활문화
- 사회, 문화 교육 행사장으로 활용
 - 향교의 접근성과 위치를 고려 / 장소가 갖는 메리트를 최대한 살리도록
 - 문화 교육행사장으로서의 적극 활용방안
 - 학교교육과의 연계 방안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등등
 -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교육청과 연계
 - 정신 학술 교육
- 자료관·전시관 설립

- 자료가 많은 향교·서원 집중 지원 : 전시·홍보 기능 확보
- 지역유교문화 자료의 시대와 계열, 체계화 시도
- 소장 자료 ; 지역 문중(인물) 유적 유물, 전적, 장판, 기타 고문서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문화유산별 : 인물,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일화, 전설, 동족마을

【參考文獻】

1989 「朝鮮後期 鄉權의 動向과 基層民 問題」, 『大邱史學』37집, 대구사학회
1989 「朝鮮前期 鄉村自治制」, 『國史館論叢』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민음사, 공저)
1991 「朝鮮時代 地方史資料의 蒐集과 整理」, (국사편찬위 자료조사위원회 특강)
1991 「朝鮮後期 書院研究와 鄉村社會史」, 『韓國史論』21집, 국사편찬위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책임)
1992 「地方史研究에 있어서 古文書資料의 活用」, 『정신문화연구』46
1993 『朝鮮時期 社會史 研究法』,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저)
1993 「朝鮮後期 門中活動의 社會史的 背景」, 『東洋學』제23집, 동양학연구소
1993 「조선후기 촌락구조 변화의 배경」, 『한국문화』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5 「歷史記錄과 生活文化資料」, 『향토사의 길잡이』수서원
1996 『朝鮮時期 村落社會史』 민족문화사
1997 「중원지역 인물·성씨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원문화논총』1집, 충북대중원문화연구소
2000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대우학술총서 477, 공저)
2001 「논산 유교 및 예학문화권 개발방향과 전망」, 『향토연구』25집, 충남향토연구회
2003 「조선후기 문중화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48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고문서연구』22, 한국고문서학회